

연일 35~37도 '살인 폭염'



잠 못드는 밤 '야간 소풍' 매일 섭씨 35도를 넘나드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달 31일 밤 11시께 광주 북구의 한 대형 마트가 무더운 낮시간을 피해 늦은 저녁에 장을 보려는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전남 온열환자 급증 ... 3명 숨지고 가축 수십만마리 폐사
점통터위 9월까지 계속 ... 재래시장 손님 줄어 휴업 하는 가게도

광주·전남지역에 2주째 섭씨 35~37도의 기록적인 '살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3명이 숨지고, 수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하는 등 폭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은 8월 초에도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9월까지도 늦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대부분 지역, 폭염에 몸살=지난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광주와 전남 12개 시·군에 폭염경보가, 전남 나머지 10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광양 37도를 최고로, ▲보성(북내) 36.9도 ▲보성(벌교) 36.6도 ▲순천(황전) 36.1도 ▲곡성(옥곡) 36.1도 ▲광주 36도 ▲함평(월야) 35.9도 ▲화순·곡성·나주 35.9도 ▲구례 35.2도 등 상당수 지역에서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광주와 전남 6개 시·군은 올 들어 가장 높은 최고기온을 보이기도 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

다. 기상청은 라니냐의 발달과 함께 더위가 가을 초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통상적으로 라니냐가 발달하는 시기인 여름 후반에서 가을 전반(8~9월)에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자주 위치하면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날씨를 보였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폭염 피해 잇따라=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의 경우 지난 6월1일부터 2개월 사이 총 2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다. 전남지역은 7월 들어 지금까지 모두 2명이 사망하고, 61명이 열사병 증세를 보였다. 가축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7월 한 달간 112곳 돼지, 닭, 오리 농가에서 23만6631마리의 가



축이 폐사했다.

◇재래시장 상인들 울상=폭염에 광주·전남 재래시장 상인들도 울상을 짓고 있다. 양동시장 등 광주지역 재래시장에 따르면 더위가 본격화된 지난달 18일부터 손님이 줄기 시작해 시장별로 20~70%가량 매출이 줄었다. 이처럼 소비자의 발길이 줄어든 것은 대부분 시장이 해가림 시설만 설치됐고 별다른 냉방 시설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전 10시부터 무더위가 시작되고 오후까지 계속되는 무더위 탓에 아예 가게 문을 닫는 곳도 생겨나고 있다.

양동닭전길시장상인회 최영래 회장은 "해마다 여름이면 매출이 급감하는데 올 무더위는 더욱 심해 장사를 아예 못하는 곳도 많다"면서 "여름이면 냉방시설이 잘 돼 있는 대형마트로 손님이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품목을 취급하는 상인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야채의 경우 강한 햇볕 탓에 작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이 크고, 구입한 야채를 제때 팔지 못하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변질하기 쉬운 어류를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여름은 '지옥 같은 시간'이다. 얼음을 채우고 냉장보관을 하는 등 어류의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여름철 생선 비린내가 더 많이 나는 탓에 발길을 돌리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다. 광주대인시장 한 상인은 "고등어 미세먼지 파동으로 가목이나 장사가 되지 않는데 무더위마저 빨리 찾아와 생선이 잘 팔지 않는다"면서 "매일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래시장에서 파는 생선이 오히려 싱싱한데도 여름철에는 거의 장사를 못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이중걸 의원은 '주류 후보의' 무난한 승리는 무난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일한 비주류 주자라는 점에서 대표에 당선된다면 더민주의 역동성 확보는 물론 호남 민심과 함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 79년 전 무등산 정상 모습은? ▶2면
- 통학버스에 비상벨 설치하자 ▶6면
- 시대를 밝힌 '늙은 군인의 노래' ▶18면
- KIA 좌완투수 고효준 왔다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더민주 당권 주자들 뜨거운 '호남 구애'

모두가 "호남의 적통" 주장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호남 민심 공략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오는 27일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진문+호남'의 구도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4면>
야권의 심장인 호남 민심을 잡아야 유력 당권 주자로서의 상징성을 확보하면 서 수도권 호남 대의원 및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등 대세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더민주 당권주자들은 광주일보와의 서면 및 전화 인터뷰에서 '광주정신'을 내세우며 호남의 '적통'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돌아선 호남 민심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공약과 함께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통해 정권 창출을 이뤄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송영길 의원과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은 각각 전남과 광주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표가 된다면 정권 창출을 통해

'호남의 한'을 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에 발탁돼서 정치권에 입문, 광주에서의 '3보1배' 등 그동안 호남 정신을 온 몸으로 실천해왔으며 대표가 된다면 야권 통합을 통해 호남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중걸 의원은 '주류 후보의' 무난한 승리는 무난한 패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유일한 비주류 주자라는 점에서 대표에 당선된다면 더민주의 역동성 확보는 물론 호남 민심과 함께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더민주 당권 주자들은 분선행 티켓 3장이 걸려있는 5월 예비 경선을 앞두고 호남 중앙위원들의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당 내외에서도 호남 중앙위원들의 표심 향배에 주목하고 있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호남 중앙위원들의 표심이 결국 당권 경쟁 초반의 호남 민심 흐름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 목표에 문 연다

내년 7월까지 한시 운영

현대중공업그룹 등 지역 조선업 구조 조정으로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직원, 사업주를 위한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에 1일 목표에 문을 연다.

전남도는 31일 "8월 1일부터 목포고용노동지청, 목포시, 영암군과 합동으로 목포고용센터에 '조선업 근로자 일자리 희망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8억원이 투입되는 희망센터는 전남도, 목포고용지청 등 각 기관에서 주요 인력을 파견 받아 일자리, 복지, 지원, 3개 팀 27명이 근무하게 된다. 지난 6월 30일 지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과 연동해 내년 7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된다.

그동안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이후 고용부, 전남도, 시·군, 유관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던 각종 조선업 고용지원 시책을 희망센터로 일원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센터 내 일자리팀은 실업 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 취업 상담 및 취업 성공패키지 지원, 직업 훈련 및 창업 지원, 구인업체 발굴 등을 맡는다. 복지팀은 심리·심층·집단 상담, 긴급복지, 단기 일자리 안내 등을, 지원팀은 지원 기업·대선 근로자 여부 판별, 노사관계 지원, 대외 협력, 기업 지원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2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조선업 근로자 고용지원위원회'도 구성됐다.

전남도는 센터 개소를 통해 조선업체 (현대삼호 제외), 사내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총 268개 업체와 2만3000여 근로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전남도는 조선업 구조 조정기에 따른 근로자 재교육·재배치를 위해 업무능력 향상 및 이직 지원 7개 과정을 새로 도입하고 기존 94개 과정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시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시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형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